

2021년 1월 21일

#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 미 증시, FAANG의 귀환에 힘입어 상승

### 대형 기술주: 실적 개선, 법인세 인상과 규제 지연 기대로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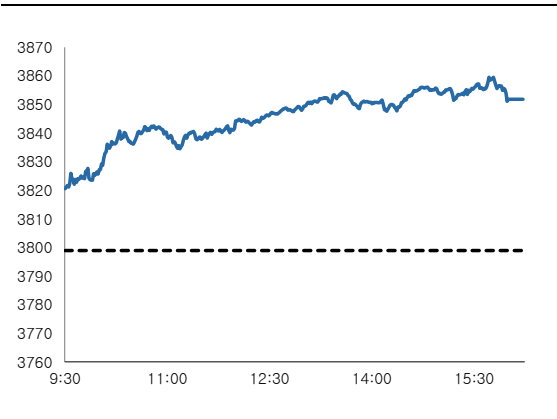
#### 미 증시 변화 요인: 대형 기술주로 쏠림 현상 발생

미 증시는 전일에 이어 대형 기술주가 강세를 주도하며 상승. 특히 넷플릭스(+16.85%)가 실적 발표 후 급등한 데 따른 것으로 추정. 더불어 전일 옐런의 발언에 기대 법인세 인상 및 규제 지연 가능성이 부각되고, 시장의 초점이 실적으로 전환된 데 따른 것도 긍정적 요인. 다만, 그동안 상승을 이끌었던 금융주 및 반도체 업종은 차익 매물 출회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차별화 진행(다우 +0.83%, 나스닥 +1.97%, S&P500 +1.39%, 러셀 2000 +0.44%)

지난 9월 이후 FAANG 기업들은 규제 강화 우려 및 장기적인 상승에 따라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등 일부 수급적인 요인 등으로 S&P500 대비 부진한 모습을 보였음. 특히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 이후 나스닥이 20% 넘게 급등 했음에도 규제 강화 등을 이유로 제한된 등락에 그쳤음. 그렇지만 전일 옐런 재무장관 후보자가 법인세 인상을 할 수 있으나 경제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서기 전에는 단행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등 규제 이슈 등 기업에 부담 주는 정책들이 미뤄질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확산. 여기에 넷플릭스(+16.85%)가 실적 발표에서 가입자 수 급증 등 언택트 환경 속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부각되며 급등하자 FAANG에 대한 투자심리가 개선되며 강세. 더불어 소프트웨어, 게임을 비롯해 필수 소비재 등 일부 언택트 관련주도 동반 상승. 다만, 컨택트 관련주를 비롯해 최근 상승을 이끌었던 금융, 반도체 장비업종은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등 쏠림 현상이 발생해 차별화 진행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취임 했는데 취임 연설에서 그는 분열 보다는 통합을 강조하며 새로운 미국을 언급. 여기에 코로나 대 유행,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인종 차별, 경제 불평등, 기후 변화 등을 언급하며 향후 진행 될 정책들을 시사. 이러한 바이든 정책에 대한 기대로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는 강세. 이는 취임 후 파리 기후 협약 재 가입 등에 따른 것으로 추정. 다만, 바이든의 정책 변화에도 집중 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실적 시즌이 진행 됨에 따라 개선세가 뚜렷하나 지난 분기 부진했던 종목군으로 매수세가 쏠리는 경향을 감안 향후 '차익 실현과 반발 매수' 흐름에서 '실적 증시' 현상이 진행 될 것으로 전망

S&P500 일종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3,114.55	+0.71	홍콩항셱	29,962.47	+1.08
KOSDAQ	977.66	+2.08	영국	6,740.39	+0.41
DOW	31,188.38	+0.83	독일	13,921.37	+0.77
NASDAQ	13,457.25	+1.97	프랑스	5,628.44	+0.53
S&P 500	3,851.85	+1.39	스페인	8,204.10	+0.06
상하이종합	3,583.09	+0.47	그리스	800.76	+0.10
일본	28,523.26	-0.38	이탈리아	22,650.78	+0.9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대형 기술주 중심 강세

넷플릭스(+16.85%)가 실적 발표에서 가입자수 2억명 돌파하자 급등 했다. 이는 향후 실적 개선 기대를 높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더불어 자사주 매입 발표 및 웰스파고와 UBS가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한 점도 영향을 줬다. 이 영향으로 디즈니(+0.80%)도 상승했다. 실적 개선 기대 높지만 최근 부진했던 블리자드(+2.11%) 등 게임주, 세일즈포스(+3.08%) 등 소프트웨어도 상승 했다. 여기에 열린 재무장관 후보자가 법인세 인상 시기 지연 등을 언급하자 지난 분기 부진했던 아마존(+4.57%), 애플(+3.29%), 알파벳(+5.36%), 페이스북(+2.44%), MS(+3.65%) 등 대형 기술주와 나이키(+2.53%), 스타벅스(+2.85%) 등 다국적 기업들도 상승했다.

한편, 포드(+8.38%)와 GM(+1.86%)은 도이체뱅크가 단기적으로 실적 기대를 감안 콜업션 매수 추천 하자 강세를 보였다. 알리바바(+5.50%) 마윈이 연설하는 모습을 공개되자 강세를 보였다. 테슬라(+0.70%)는 오픈하우스가 목표주가를 486달러에서 1,036달러로 상향 조정했으나 차익 매물 출회되며 상승이 제한 되었다. 진코솔라(+5.74%) 등 태양광 업종과 넥스트라에너지(+1.50%) 등 신재생 에너지 업종은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기대 속 강세를 보였다. 반면, AMAT(-1.26%), 램리서치(-2.93%), 마이크론(-2.34%) 등 일부 반도체 업종과 JP모건(-1.50%), BOA(-1.31%) 등 금융주, US스틸(-3.52%) 등 철강업종은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욕구가 확산되며 하락 했다.

####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0.55%	대형 가치주 ETF(IVE)	+0.43%
에너지섹터 ETF(OIH)	-1.28%	중형 가치주 ETF(IWS)	+0.67%
소매업체 ETF(XRT)	+0.36%	소형 가치주 ETF(IWN)	+0.52%
금융섹터 ETF(XLF)	-0.42%	대형 성장주 ETF(VUG)	+2.34%
기술섹터 ETF(XLK)	+1.98%	중형 성장주 ETF(IWP)	+1.05%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2.51%	소형 성장주 ETF(IWO)	+0.45%
인터넷업체 ETF(FDN)	+2.54%	배당주 ETF(DVY)	-0.13%
리츠업체 ETF(XLRE)	+2.08%	신중국 고배당 ETF(DEM)	+0.02%
주택건설업체 ETF(XHB)	+2.65%	신중국 저변동성 ETF(EEMV)	+0.77%
바이오섹터 ETF(IBB)	+0.10%	미국 국채 ETF(IEF)	+0.04%
헬스케어 ETF(XLV)	+0.55%	하이일드 ETF(JNK)	+0.25%
곡물 ETF(DBA)	-0.48%	물가연동채 ETF(TIP)	+0.15%
반도체 ETF(SMH)	-0.42%	Long/short ETF(BTAL)	+0.05%

####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330.42	+0.34%	+0.44%	+12.64%
소재	477.61	+0.36%	-2.15%	+5.50%
산업재	758.30	+0.64%	-0.90%	+1.31%
경기소비재	1,364.99	+2.26%	+1.53%	+5.89%
필수소비재	674.44	+0.25%	-1.01%	-3.10%
헬스케어	1,381.65	+0.58%	+1.54%	+5.26%
금융	513.19	-0.47%	-1.48%	+8.70%
IT	2,316.03	+2.02%	+2.03%	+2.84%
커뮤니케이션	225.30	+3.61%	+5.21%	+2.32%
유틸리티	321.12	+0.62%	+2.78%	+2.13%
부동산	229.41	+1.97%	+4.98%	+2.1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한국 주식시장 전망

### 수출 개선 뚜렷한 업종 주목

MSCI 한국 지수 ETF 는 1.38% MSCI 신흥 지수 ETF 는 1.76% 상승해 한국 증시는 0.5% 상승 출발이 예상된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098.2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한국 증시는 외국인과 기관의 대형주 중심으로 차익 매물을 내놓으며 하락 전환하기도 했으나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순매수에 힘입어 결국 상승 전환에 성공하며 마감 했다. 이런 가운데 미 증시가 실적 개선 기대 등에 힘입어 대형 기술주의 급등으로 상승 했다. 더불어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으로 신재생 에너지 업종이 강세를 보인 점도 특징이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은 전일 일정 정도 선반영이 되었던 점을 감안 한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국을 비롯해 글로벌 주식시장의 특징을 보면 결국 실적 시즌임을 감안 관련 이슈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시장의 특징은 차익 매물과 반발 매수의 싸움이었던다면 이제는 실적에 주목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미 증시의 강세를 이끈 부분은 결국 법인세 인상 시기 지연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다국적 기업들과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다. 물론 최근 상승이 컸던 금융과 반도체 장비 업종의 경우 차익 실현 매물 출회로 하락 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글로벌 주식시장의 특징을 감안 한국 증시 또한 상승 출발 후 상승폭이 컸던 종목군에 대해서는 매물 소화 과정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실적 기대가 높은 종목군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오늘 발표되는 20 일까지의 수출입 통계를 통해 증가세가 뚜렷한 업종군의 경우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수출 증가는 기업실적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 주요 경제지표 결과

### 미국 주택 지표 둔화 지속

1 월 미국 주택시장 지수는 전월(86)과 예상(86)을 하회한 83 에 그쳤다. 지난 12 월에 90 에서 86 으로 하락한 데 이어 1 월도 둔화 되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35 년내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주택시장의 견고함을 보여주고 있다.

## 상품 및 FX 시장 동향

### 상품 환율 강세

국제유가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경기 부양책 기대가 유입되며 상승 했다. 이는 향후 원유 수요 회복 기대를 높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미국 원유 재고 감소 기대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다만, 최근 상승에 따른 매물 출회 또한 여전히 이어지며 상승폭은 제한 되었다.

달러화는 유로화에는 강세를 보였으나 여타 환율에는 약세를 보이는 등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보험권을 보였다. 유로화는 독일을 비롯한 여타 국가들의 경제 봉쇄 강화에 따른 이중 침체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자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한편, 호주달러, 러시아 루블, 브라질 헤알, 캐나다 달러화 등 상품 환율은 미국 부양책에 대한 기대 속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역외 위안화도 달러 대비 0.25% 강세를 보이는 등 신흥국 환율은 강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장 초반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에 힘입어 상승 출발 했다. 특히 미 증시가 상승하는 등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진 점도 금리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그렇지만 바이든 출범에 따른 일부 되돌림이 유입되며 하락 전환했다. 이런 가운데 20 년물 국채입찰에서 응찰률이 최근 6 번 평균(2.36 배)를 하회한 2.28 배를 기록하는 등 최근 국채입찰에서 수요가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자 하락을 제한한 가운데 약보험권 등락을 보였다.

금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 심리가 유입되며 1.4% 상승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바이든 행정부의 부양책 기대 강세를 보였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52% 하락 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53.31	+0.62	+0.13	Dollar Index	90.463	-0.04	+0.12
브렌트유	56.08	+0.32	+0.04	EUR/USD	1.2106	-0.19	-0.42
금	1,870.20	+1.42	+1.19	USD/JPY	103.53	-0.36	-0.35
은	25.766	+1.76	+1.30	GBP/USD	1.3656	+0.19	+0.12
알루미늄	1,980.50	+0.84	-1.61	USD/CHF	0.8897	+0.12	+0.21
전기동	8,044.50	+1.14	+0.44	AUD/USD	0.7748	+0.69	+0.19
아연	2,728.00	+1.56	-1.64	USD/CAD	1.2637	-0.77	-0.48
옥수수	522.00	-0.76	+0.92	USD/BRL	5.308	-0.85	+0.01
밀	667.75	-0.67	+0.41	USD/CNH	6.4633	-0.27	-0.06
대두	1,369.50	-1.17	-3.44	USD/KRW	1100.30	-0.24	+0.47
커피	125.20	-1.53	+3.13	USD/KRW NDF1M	1098.20	-0.36	+0.02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10 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 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1.079	-1.01	-0.47	스페인	0.073	+0.60	+0.60
한국	1.702	-0.80	-1.50	포르투갈	0.021	+1.40	+1.80
일본	0.049	-0.80	+0.90	그리스	0.637	-2.90	-2.90
독일	-0.529	-0.30	-0.70	이탈리아	0.617	+3.00	+1.9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